노인가구의 주거현황 DB 요소의 유형화에 관한 기초연구

A Study on the Housing DB Construction of the Elderly Household

박남희*
Park, Nam-Hee

최재순**
Choi, Jae-S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using DB construction for elderly people. Document research and content analysis methods were used in this study.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number of elderly household is increasing very rapidly. In particular, they consist of a single person or a couple. These households prefer to live and age in a detached house. However, the social welfare system does not satisfy their needs. Therefore a systematic social support or welfare system is required to reflect their needs. For example, related works of housing welfare need to be prepared so that their data base system correctly reflects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l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Keywords : elderly household, living condition, housing DB

주요어 : 노인가구, 주거현황, 데이터베이스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2006.12.31기준)는 48,991,779명이고 시·도별로는 경기, 서울, 부산, 경남, 경북 등에 이어 인천의 순으로 인구가 많다. 우리나라 65세 전체 노인중 33%가 노인 1인이나 노인부부로 이루어진 노인가구로 나타났고(통계청, 2005), 2007년(7월 1일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4,810천명으로 총인구의 9.9%를 차지(통계청, 200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고령 인구의 증가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고령 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의 일환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노인가구 노인에 대한 주거현황 조사를 통해 고령사회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에 대비하는 정책 마련을 위한 노인주거복지 관련 연구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로 보면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하는 준비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며 이러한 일환으로 노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주거 관련 정책을 다방면으로 만들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관심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고령화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주거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노인주거에 대한 관심이 낮았고 일반 주택에 대한 주택법에서의 관심은 나타나지만 노인 주택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한다. 또한 노인의 경제력이 약하고 노인의 주거이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주택과 함께 주인인 노인도 함께 노화되고 있으며(윤주현, 2005) 이러한 사실이 노인주거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한층 더 요구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특성에 맞는 노인가구와 주거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DB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노인인구의 변화 및 특성을 분석하고 노인주택계획, 노인주택정책, 노인주거 요구 및 평가, Aging in Place 등을 논하지만(권오정, 1997; 김정석, 2007; 송하승, 2005; 신화경 외 1인, 2009; 윤주현, 2005; 이지숙, 2007; 조성희 외 1인 2009; 조인숙 외 2인, 2007; 주택도시연구원, 2004, 2006; 한국주거학회, 2005) 실제로 노인의 주거복지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대안이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노인의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DB로 구축하여 노인의 주거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며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송하승(2005)의 연구에서 노인가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노인가구의 주거실태와 주거복지수준을 분석, 평가한 결과 노인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평균 소득이 낮고 최저생계비 미달가구가 많으며, 주거시설수준, 주거밀도 및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노인 1인가구 및 노

*정회원(주저자), 인천대학교 소비자동학과 겸임교수

**정회원(교신저자), 인천대학교 소비자동학과 교수

이 연구는 2008년도 인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09년도 한국주거학회의 추계학술발표대회에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인부부가구의 주거수준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의식 분석 결과에서는 노인 독립세대 구성 비율이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녀와 따로 살겠다는 희망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노인가구 및 주거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방향 설정에 대한 주요 논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고려와 노인주거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그리고 노인주택에 대한 신규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정책적인 고려도 부족한 이 시점에서 주택재고에 대한 고려와 특히 노인주거에 대한 실태 파악과 조사 자료에 대한 DB 구축을 통한 시계열적인 분석 및 정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의 현황을 조사한다. 둘째, 노인가구의 특성을 감안한 주거 DB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각종 문헌자료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2차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자료 해석상의 제한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통계자료 분석을 활용한 내용분석방법이다. 본 연구의 조사 자료는 2000년 이후에 기관에서 발행한 노인의 주거실태 관련 보고서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학술 연구도 포함하여 분석대상에 한계가 있다. 연구의 분석대상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이다.

II. 노인가구의 특성

1. 노인가구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4,810천명으로 총인구 48,456명 가운데 9.9%를 차지(통계청, 2007)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0년에는 11%, 2020년에는 15.6%, 2030년에는 24.3%로 초고령사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1>. 특히 2018년 경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에 달하는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달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임은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다(조성희 외 1인, 2009).

일반적으로 노인가구는 노인 1세대 가구로 노인¹⁾ 1인 혹은 노인과 그 배우자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뜻하는데 부부일 경우에는 둘 중에 한 명이 65세 이상인 가구를 뜻한다(한국주거학회, 2005). 200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 33%가 1세대 가구로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이 2세대 가구(24.9%), 3세대가구(22.9%)의 순이며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1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세대 가구에 거주하는 노인은 1990년도(약 48%)에 비해 크게 감소한 반면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은 1990년 100명당 9명에서 2005년에는 100명당 18명으로 나타나 1인 가구 노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는 노인가구의 자녀와의 동거 및 별거에 따른 세대구성별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노인 1인 가구 및 1세대가구만으로 구성된 노인가구의 비율이 1975년 7.0%에서 2005년에는 51.2%로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인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노인인구의 증가를 상회한다. 이처럼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은 미혼자녀와 동거하던 가구가 자녀를 출가시킨 후 노인 혼자 살게 되었거나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로 여성의 취업 및 사회참여의 확대로 노인 부양 기능이 크게 감소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한국주거학회, 2005).

2. 노인가구의 지역사회 거주기간

노인가구의 주거이동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해당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65세 이상의 노인은 해당 주택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비율이 39.2%, 3년 미만인 16.3%, 10~15년 거주한 비율이 14.5%

표 1.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단위: 천명, %)

	1980	1990	1997	2000	2007	2010	2020	2030
총인구	38,124	42,869	45,954	47,008	48,456	48,875	49,326	48,635
0~14세	12,951	10,974	10,233	9,911	8,734	7,907	6,118	5,525
15~64세	23,717	29,701	32,791	33,702	34,912	35,611	35,506	31,299
65세 이상	1,456	2,195	2,929	3,395	4,810	5,357	7,701	11,81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세	34.0	25.6	22.3	21.1	18.0	16.2	12.4	11.4
15~64세	62.2	69.3	71.4	71.7	72.0	72.9	72.0	64.4
65세 이상	3.8	5.1	6.4	7.2	9.9	11.0	15.6	24.3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7

1) 고령자 또는 노인의 범위는 법령에 따라 상이함. 즉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부터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 노인을 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를 말함.

표 2. 노인가구의 세대구성별 분포

(단위: %)

구분		1975년	1981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노인단독 가구	1인가구	7.0	19.7	8.9	13.3	16.2	18.2
	1세대가구			16.9	23.3	28.7	33.0
2세대 가구		6.8	11.2	23.4	23.0	23.9	24.9
3세대 가구		78.2	69.1	47.6	38.4	29.9	22.9
4세대 이상 가구				2.0	1.3	0.9	0.5
비혈연 가구		8.0	-	0.7	0.8	0.4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1975~2005년까지 각 해당년도 인구 및 주택 총조사 보고서

로 나타났고 10년 이상 거주한 비율만 보면 59.4%로 노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현재의 거주지에서 장기 거주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노인의 현주거지 거주 이유를 보면 경제적 능력에 맞추어서(39.4%), 옛날부터 살아와서(34.0%)로 나타났는데 현재는 경제적 여력에 맞추어 현주거에 거주하고 있으나 옛날부터 살아온 지역 애착심도 높게 나타났다.²⁾ 노인이 되면 수입이 늘지는 않고 은퇴로 인한 수입의 감소를 감안해볼 때 현재의 경제적 능력과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노인의 특성상 현주거지에서의 거주는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주거지에서의 주거만족도는 44.7%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희망하는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이 73.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지역사회 거주기간

기간	%
3년 미만	16.3
3~5년(%)	12.5
6~9년(%)	11.8
10~15년(%)	14.5
16~19년(%)	5.7
20년 이상	39.2
평균거주년수(년)	13.6

자료: 통계청, 2004 보고서

3. 노인가구 특성 관련 선행연구

노인 단독가구의 특성을 정리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이영자 외 1인(1999)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만 60세 이상의 단독가구 노인(독거노인과 노인부부가구) 38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 결과 단독가구에는 여자노인이 훨씬 더 많았으며 연령은 60대가 배우자가 있는 노인, 총자녀수는 3명 이하인 노인이 많은 것을 조사하였다. 단독가구 노인의 생활비 마련방법은 직

접 일을 해서 번다가 23.7%, 재산소득, 연금이나 퇴직금이 41.9%, 생활보호대상자가 0.8%, 자녀가 대준다가 33.6%였으며, 가계소득은 50만원 이하가 26.0%, 51~100만원이 37.8%, 111~140만원 10.4%, 141만원 이상이 25.8%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생활수준은 어렵다가 18.0%, 보통이다 52.9%, 넉넉하다가 29.2%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가 45.3%, 보통이다 21.6%, 건강치 않다가 33.1%였다. 이들 노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우울감의 전반적인 정도를 조사한 결과 먼저 스트레스의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이 5점 척도 중 2.55로 약간 낮은 편이었고, 영역별로 보면 건강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3.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가족관계(2.72), 주거환경(2.25), 경제문제(2.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명희(1999)의 충북지역의 60세 이상 노인 391명을 대상으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과 단독가구 노인의 여가생활을 비교한 연구결과에서는 여자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낮은 노인이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이 높았고, 동거노인은 무학이 많고 단독가구 노인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동거노인은 건강이 보통인데 단독가구 노인은 좋거나 나쁘거나 동거가구는 무배우자, 단독가구는 유배우자 비율이 높고, 단독가구 노인이 동거노인보다 많이 하는 여가활동은 화투하기, 장기바둑 두기, 시장백화점 가기 등 주로 오락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규(2000)의 광주지역을 대상으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단독가구의 거주형태는 부부중심의 가구가 독거가구에 비해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단독가구로 사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인단독가구가 주거이동을 원치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현 주거환경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이 강하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노인단독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1주택당 평균 가구수는 1.6 가구이며 평균 방수는 2.4개, 평균 주택규모는 24평, 평균 건축연수는 10.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은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고 주거소유비율과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 주택에 대한 정서성이나 이웃관계에 대한 정서성이 높은 반면 주택의 현

2)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보면 노인들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노후생활을 보내고 싶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이 오랫동안 거주해온 친근한 지역사회에 머물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Aging in Place이며 이 개념은 한 지역에서 머물면서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이 있다(조인숙 외 2인(2007). p. 96).

대화 혜택이 상대적으로 열등하여 주택의 물리적 특성이나 상태의 노후화가 예상되었다. 소득이 낮거나 학력이 낮을수록 단독주택에 소득이 높거나 학력이 높을수록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주거문제에 대한 인지도는 주거비용의 과다, 낮은 설비수준, 소음공해, 수납공간의 부족, 미끄러운 바닥재료 등의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주거만족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소유형태, 주택형, 주거규모, 건축연한, 욕실설비 등의 변인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고, 주거선택시 외부사회와의 접촉보다는 자녀나 자연과의 친밀한 접촉을, 주택의 설비수준이나 주택의 규모와 같은 주택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보다는 거주지역이나 소유형태와 같은 주거특성 관련 요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의지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개선희망 내용도 노후부분의 수리나 부엌 및 화장실의 개조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조경옥(2003)은 노인독신 또는 노인부부로 이루어진 노인단독가구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인독신가구가 노인부부가구에 비해 두드러진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노인단독가구가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으로서가 아닌 일반적인 노년기의 가구 형태의 하나로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조사하고 특히 노인인구 구성이나 성비를 볼 때,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노인이 독신가구 형태로 단독가구를 구성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을 밝혔다.

III. 노인가구 주거 DB 구축 방안

1. 노인가구 조사 선행연구

그동안 노인주거 관련 정책이나 연구는 노인주거 분야에서 기반을 다지는 부분에 치중해왔다. 특히 정책적으로는 노인주거의 기본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다. 기본적인 노인주거 조사의 틀도 없고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일부 연구에서 조사해 온 자료를 중심으로 기본 요소를 정리하였다. 특히 노인과 관련하여 기본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데 있어서 노인가구의 현실을 감안한 정책 수립이나 법제 입안은 노인주거복지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방향이 될 것이며 노인의 지역별, 계층별, 유형별 노인의 주거실태 조사자료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

노인가구의 실태를 조사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정리하였다. 주택도시연구원(2004)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통해 노인의 풍요로운 주거환경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과 법제도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면서 고령자 전용의 주택공급과 주택개조정책 도입, 고령자 주거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및 고령자 주택 설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2005)는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 치수 표준화 연구를 통해 고령자를 위한 표준화 설정 기준 및 노인주거 설계 지침 및 고령자를 배려한 주거시설의 공간구성 및 개조사

례를 제시하여 국내 각종 주거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2005)은 10대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에 이르기까지의 2,000명을 대상으로 동적 신체 특성 및 치수를 측정하여 측정 결과를 DB로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 및 특화계층의 동적 치수에 대한 인체 측정치의 DB를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고령자의 특성을 살린 44개 항목을 조사하여 고령 사회에 대비한 DB 구축을 시도하였다.

송하승(2005)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와 국토연구원의 2004년 노인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점유 형태, 주거밀도, 주거시설수준 및 노후도를 분석하였다. 노인가구의 주거실태는 노인가구 유형별로 주거점유 형태를 분류하고 주거밀도는 동거가구와 방당거주인수로 조사하였다. 주거시설 수준 및 노후도에 있어서는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온수목욕시설, 상수도 등과 주택의 건축경과 연수로 조사하였다.

주택도시연구원(2006)은 고령사회 주거지원 종합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령자 주거정책을 평가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고령자 및 고령 진입층의 주거욕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고령자 주거정책의 장기 로드맵을 통해 고령자의 주거정책 방향과 그들의 주거보장을 위한 최저주거기준 설정, 주택개조를 위한 최소 안전기준 설정, 고령자를 위한 정보제공센터 설립 등의 단기과제와 고령 임차가구를 위한 주거대책 수립 및 주택개조지원체제 구축과 같은 장기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이지숙(2007)은 노인주택 가구 디자인의 지침 비교를 통해 침실, 거실, 부엌, 식당 등에 놓이는 가구의 디자인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나타난 지침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신화경 외 1인(2008)은 노인주거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을 구성하기 위하여 노인의 주거환경에 관련된 실내외 평가지침을 중심으로 항목을 추출하여 각 공간별로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따라 평가틀을 구성하였다.

조성희 외 1인(2009)은 노인의 노후 상황을 이해하고 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령기 단계를 제안하고 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노인의 특성을 인구학적으로 파악하였다. 즉 노인가구의 거주기간, 가구원수, 자녀 동거 여부, 고령화에 따른 구분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고령기 단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2. 노인가구 조사 항목 분석

노인가구의 주거 DB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인가구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의 조사항목을 분석하여 노인가구의 DB 구축 요소를 선정하는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즉 노인가구의 주거 DB를 구축하기 위하여 1단계에서는 노인가구의 주거실태를 조사한 연구를 대상으로 조사항목을 분석하고 2단계에서는 일반사항과 주거현황 항목으로 나누어 분류하였고, 3단계로는 이 가운데 필수 기본 사항을

그림 1. 노인가구 주거 DB 구축 요소 선정 과정

선정하였다. 4단계로는 선정된 요소와 기타 사항을 검토하여 노인가구의 DB 구축 요소를 결정하였다. 4단계로 선정된 DB 요소는 3단계에서 선정된 필수 요소의 공통 사항과 공통 요소가 아니어도 노인의 주거복지를 위한 기본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것을 중심으로 최종 DB 요소를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주택도시연구원(2004)의 연구결과에서는 일반사항으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결혼상태, 가족구성, 건강상태, 주거현황으로 거주년수, 주택소유형태, 주거유형, 주택개조여부 등을 추출하였다. 이 가운데 필수 요소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결혼상태, 가족구성, 건강상태, 거주년수, 주택소유형태, 주거유형, 주택개조여부 모두 선정하였다.

주택도시연구원(2006)의 연구결과에서는 일반사항으로 성별, 연령, 학력, 동거상태, 소득, 자산, 생활비, 건강상태, 결혼상태, 가족구성, 주거현황으로 주택유형, 주택규모, 주택소유, 주택가격, 임대료, 건축연도, 주택 거주년수, 안전사고 유무, 주택개조경험 등을 추출하였다. 이 가운데 필수 요소는 성별, 연령, 학력, 동거상태, 소득, 자산, 건강상태, 가족구성, 주택유형, 주택규모, 주택소유여부, 주택 거주년수, 주택개조경험 등을 선정하였다.

표준과학연구원(2005)의 연구결과에서는 일반사항으로 연령, 성별, 동거형태, 건강상태, 질환, 학력 등을 추출하였고 모두 필수 요소로 선정하였다.

송하승(2005)의 연구결과에서는 주거현황으로 추출한 주거점유형태, 주거밀도, 주거시설수준, 노후도 모두 필수 요소로 선정하였다.

한국주거학회(2005)의 연구결과에서는 일반사항으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독거 혹은 부부가구로 사는 이유, 건강상태, 질환종류, 불편한 행동, 기본 및 도구활용 일상생활활동 정도, 생활지, 주수입원, 신체치수, 주거현황으로 입주시기, 주택에서 보내는 시간, 현재주택 계속 거주 여부 및 이유, 현주거유형, 주택가격, 주택규모, 주택사용내용, 공간구성형태, 안전사고 장소 및 유형, 공간별생활행위, 주택개조 내용 및 필요성 인식 등을 추출하였고 이 가운데 필수 요소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건강상태, 질환종류, 불편한 행동, 기본 및 도구활용 일상생활활동 정도, 주수입원, 입주시기, 주택에서 보내는 시간, 현재주택

계속 거주 여부 및 이유, 현주거유형, 주택규모, 주택사용내용, 공간구성형태 등을 선정하였다.

조성희 외 1인(2009)의 연구결과에서는 거주기간, 가구원수, 자녀 동거여부 등을 추출하였고 모두 필수 요소로 선정하였다.

통계청의 인구 및 주택 총조사 자료에서는 일반사항으로 연령, 성별, 학력, 직업, 결혼상태, 동거가족, 가구원수, 주거현황으로 주택유형, 점유형태, 편의시설, 건축연도, 방수, 주택규모, 건축연도 등을 추출하였고 모두 필수 요소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노인가구의 주거 DB 구축을 위한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선정되었다. 즉 선행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연구자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추가하였다. 일반사항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 결혼상태, 가족구성, 건강상태, 질환유무, 질환종류, 동거상태, 불편한 행동, 기본 및 도구활용 일상생활활동 정도, 자녀와의 동거계획 등을 선정하였다. 주거현황 요소로는 주거 DB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사항보다 많은 항목을 선정하였다. 즉 거주년수, 주택소유형태, 주택유형, 주택규모, 방수, 공간사용현황, 주택개조여부, 주택에서 보내는 시간, 현재주택 계속 거주 여부 및 이유, 주택의 물리적 수준(부엌시설, 화장실, 목욕시설, 상수도), 주택건축연도, 거주지역, 이사계획 여부 및 이유, 희망주택유형, 희망주택규모, 희망거주지역 등을 선정하였다.

3. 노인주거 DB 요소의 유형화

노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실태를 조사하고 조사자료를 DB로 구축하여 노인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및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일반 사항 및 주거현황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유형화하였다. 즉 일반사항은 개인특성, 경제적 특성, 신체특성, 가족특성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표 5>. 주거현황은 주택 기본특성, 공간특성, 개조특성, 향후 계획특성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즉 노인가구의 주거DB를 구축하기 위한 대분류는 일반사항과 주거현황이며 중분류는 개인특성, 경제적 특성, 신체특성, 가족특성, 주택 기본특성, 공간특성, 개조특성, 향후 계획특성 등의 8가지 내용으로 구성하고 소분류는 각각 중분류 내용을 세분화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단계별로 유형화는 것은 주거실태에 대한 DB 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또한 특성의 조합에 따라 노인주거복지 정책 방향 수립 및 실행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4. 노인주거 DB의 활용

1) 주거 DB 구축의 주체

노인주거의 DB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인가구의 일반적 특성 및 주거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과 같이 정부가 시

표 4. 노인가구의 주거복지를 위한 DB 구축 요소

연구자	조사내용	추출요소		필수요소	DB 요소
		일반사항	주거 현황		
주택 도시 연구원 (2004)	노인의 주택내 안전사고 조사(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결혼상태, 주택 거주년수, 주택소유형태, 가족구성, 주거유형, 건강상태, 주택개조여부, 안전사고 장소 및 유형)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결혼상태, 가족구성, 건강상태	거주년수, 주택소유형태, 주거유형, 주택개조여부	거주년수, 주택소유형태, 주거유형, 주택개조여부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결혼상태, 가족구성, 건강상태	일반사항: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 결혼상태, 가족구성, 가족수, 건강상태, 질환유무, 질환종류, 동거상태, 불편한 행동, 기본 및 도구활용 일상생활활동 정도, 자녀와의 동거계획
주택 도시 연구원 (2006)	일반사항-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어린 시절 보낸 곳/가족사항-동거자, 자녀 집과의 거리/경제상태-소득, 자산, 생활비/건강상태-건강상태/주거상태-주택유형, 주택규모, 주택소유, 주택가격, 임대료, 건축년도, 주택 거주년수, 안전사고 유무, 주택개조경험/노후의 주거문제에 대한 전반적 인식-희망하는 주거환경, 주택소유에 대한 인식,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살고싶은 거주형태-건강한 경우, 건강이 나빠진 경우, 혼자 되었을 때/개조에 관한 사항-개조 의향, 개조희망공간/노후생활-노후시작시기, 자녀와의 동거 희망 여부/결혼상태, 주택소유형태, 가족구성, 주거유형, 건강상태, 주택개조여부, 안전사고 장소 및 유형	성별, 연령, 학력, 동거상태, 소득, 자산, 생활비, 건강상태, 결혼상태, 가족구성	주택유형, 주택규모, 주택소유, 주택가격, 임대료, 건축년도, 주택 거주년수, 안전사고 유무, 주택개조경험	주택 거주년수성별, 연령, 학력, 동거상태, 소득, 자산, 건강상태, 가족구성, 주택유형, 주택규모, 주택소유여부	주거현황: 거주년수, 주택소유형태, 주택유형, 주택규모, 방수, 공간사용현황, 주택개조여부, 주택에서 보내는 시간, 현재주택 계속 거주 여부 및 이유, 주택의 물리적 수준(부엌시설, 화장실, 목욕시설, 상수도), 주택건축년도, 거주지역, 이사계획 여부 및 이유, 희망주택유형, 희망주택규모, 희망거주 지역
표준 과학 연구원 (2005)	연령, 성별, 주로 쓰는 손, 출산여부, 동거형태, 건강상태, 질환, 학력, 출생지, 가장 오래 산 곳, 신발크기, 직업, 여가시간, 몸무게, 키, 인체치수	연령, 성별, 동거형태, 건강상태, 질환, 학력		연령, 성별, 동거형태, 건강상태, 질환, 학력	
송하승 (2005)	주거점유형태, 주거밀도, 주거시설수준, 노후도			주거점유형태, 주거밀도, 주거시설수준, 노후도	
한국 주거학회 (2005)	노인 특성 -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독거 혹은 부부가구로 사는 이유, 건강상태, 질환종류, 불편한 행동, 기본 및 도구활용 일상생활활동 정도, 생활지, 주수입원, 입주시기, 주택에서 보내는 시간, 현재주택 계속 거주 여부 및 이유, 현재주거유형, 주택가격, 주택규모, 주택사용내용, 공간구성형태, 안전사고 장소 및 유형, 공간별생활행위, 신체치수, 주택개조 내용 및 필요성 인식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독거 혹은 부부가구로 사는 이유, 건강상태, 질환종류, 불편한 행동, 기본 및 도구활용 일상생활활동 정도, 생활지, 주수입원, 신체치수	입주시기, 주택에서 보내는 시간, 현재주택 계속 거주 여부 및 이유, 현재주거유형, 주택가격, 주택규모, 주택사용내용, 공간구성형태, 안전사고 장소 및 유형, 공간별생활행위, 주택개조 내용 및 필요성 인식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건강상태, 질환종류, 불편한 행동, 기본 및 도구활용 일상생활활동 정도, 주수입원, 입주시기, 주택에서 보내는 시간, 현재주택 계속 거주 여부 및 이유, 현재주거유형, 주택규모, 주택사용내용, 공간구성형태	
조성희, 전은정 (2009)	거주기간, 가구원수, 자녀 동거여부, 거주 유형			거주기간, 가구원수, 자녀 동거여부	
통계청	인구 및 주택 총조사	일반-연령, 성별, 학력, 직업, 결혼상태, 동거가족, 가구원수	주택-주택유형, 점유형태, 편의시설, 건축연도, 방수, 주택규모, 건축연도	연령, 성별, 학력, 직업, 결혼상태, 주택유형, 점유형태, 편의시설, 건축연도	

행하는 인구 및 주택 총조사와 같은 형태의 전수조사가 있을 수 있으나 전 국민에 대한 것이 아닌 노인가구에 해당하는 조사로 국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 단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갈 염려가 있다.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하게 되면 해당지역주민의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그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측면에서도 시간과 비용에 비례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주민과 일선에서 마주치는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노인주거복지의 최우선 창구가 될 수 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는 행정민원업무, 출생신고, 사망신

고, 전입신고 등의 신고 업무와 주민등록증 발급 등의 업무를 하고 사회복지 분야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일, 민방위 훈련과 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통지서를 전달해주고 선거가 있는 경우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부를 작성하는 등의 일을 하는 곳이다. 최근 들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생활서비스를 주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으므로³⁾ 역할 강화를 통해 주거복지지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3) 박남희 외 1인(2009), 주민자치센터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인천시를 중심으로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1), p. 125 재인용.

표 5. 노인가구의 주거 DB 요소 분류 사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일반 사항	개인특성	성별, 연령, 학력
	경제적 특성	직업, 소득
	신체특성	건강상태, 질환 유무, 질환 종류, 불편한 행동, 기본 및 도구활용 일상생활 정도
	가족특성	결혼상태, 동거상태, 가족수, 가족구성, 자녀와의 동거계획 여부
주거 현황	주택기본특성	유형, 규모, 방수, 소유여부, 거주년수, 건축년도, 물리적 수준(부엌시설, 화장실, 목욕시설, 상수도), 거주지역
	공간특성	공간사용 현황, 주택에서 보내는 시간
	개조특성	개조 여부
	향후계획특성	계속 거주여부, 계속 거주이유, 이사계획 여부, 이사계획 이유, 희망주택유형, 희망주택규모, 희망거주지역

한편으로는 정부 산하기관이나 각종 학회 및 시민단체 등이 노인주거 DB 구축을 할 수 있으나 주거복지가 정부 차원에서의 전 국민을 위한 주거서비스 제공임(박남희 외 1인, 2006) 감안한다면 주거 DB 구축의 주체는 정부나 지자체가 맡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노인가구 주거 DB 구축을 위한 조사나 구축 단계에서 조사나 DB 활용 및 관리, 모니터링 등의 측면에서 부분적인 역할을 맡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2) 주거 DB의 활용 및 관리

노인주거 DB는 다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즉 노인의 주거복지수준 향상 측면에서 그 효용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첫째, 노인가구의 주거실태 조사를 통해 노인가구의 주거수준 파악이 용이하다. 즉,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노인가구의 현재 주거수준이 DB 현황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필요시마다 실태조사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만 시행하면 된다. 둘째, 노인가구의 주거자료가 DB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노인주거 관련 정책 입안 및 수립과 시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즉 각종 조사기관이나 연구자마다 다르게 나오는 결과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셋째, 주택정책을 다루는 국토해양부와 복지를 시행하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같이 중앙정부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DB화 되어 있는 단일 자료를 통해 노인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기가 수월해진다. 넷째, 노인주거가 DB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가 용이해지며 이는 정부 주택정책과도 연계되어 주택재고 파악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노후주택이 많고 현실적으로는 신규주택이라 하더라도 주인인 노인과 함께 노후화되어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인에 대한 DB와 함께 주택까지 DB화하여 관리한다면 주택 수요와 공급을 다루는 측면에서 전략적인 조절 방안 도출도 용이해진다.

현재 우리 사회는 많은 부분에서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부처나 기업간에 또한 각종 산업 분야내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IT 강국

이라 할만큼 그 수준이 세계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초고속 정보화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의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대응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도 마련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도 생기는 실정이다. 노인가구에 대한 일반사항과 주거현황은 개인정보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보호받아 마땅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자료가 공익의 차원에서 쓰일 때는 매우 유용한 것이 될 수 있겠으나 잘못 도용된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는 막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는 철저해야 할 것이다. 기존에 일부 행정기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전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조치와 마찬가지로 이에 상응하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노인가구의 주거 DB도 그 의미가 커질 것이다. 따라서 노인가구의 주거 DB 관리 주체 역시 일선 행정기관이 맡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획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첫째, 노인가구에 대한 인구 변화 실태 파악을 통해 노인 현황의 일부라도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노인가구가운데 1인가구와 부부세대로만 이루어진 가구가 증가일로에 있었다. 노인은 현재의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Aging in Place에 대한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가구의 현황 파악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노인의 주거복지를 위한 DB 구축의 중요성을 검토할 수 있었다. 노인의 주거복지를 위한 DB는 일반사항과 주거현황 요소로 나누어 선정하였고 이를 유형화하였다. 일반사항은 개인특성, 경제적 특성, 신체특성, 가족특성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주거현황은 주택 기본특성, 공간특성, 개조특성, 향후 계획특성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주거실태에 대한 DB 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또한 특성의 조합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정책 방향 수립 및 실행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노인주거의 DB를 활용하기 위해서 노인주거 DB 구축 및 활용과 관리의 주체는 정부나 지자체가 맡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행정기관이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에 대한 준비 및 실행에 가장 합당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선 행정기관인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면 Aging in Place를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주거복지 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노인주거의 DB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인가구의 일반적 특성 및 주거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단계

의 연구이므로 향후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 권오정(1997), 노인단독가구의 주거조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1), 1-18.
- 김정석(2005), 고령화 사회의 노인인구와 노인가구의 변화와 전망, 국토, 국토연구원, 통권 280호, 6-19.
- 박남희 · 최재순(2006), 주거학 전공자를 위한 주거복지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 기초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7(4), 89-98.
- 박남희 · 최재순(2009), 주민자치센터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7(4), 123-132.
- 송하승(2007), 고령화사회 노인주거실태와 주거의식, 국토, 국토연구원, 통권 280호, 20-31.
- 신화경 · 이준민(2009), 노인주거환경 평가들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273-277.
- 윤주현(2005),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노인주거정책의 방향 및 과제, 국토, 국토연구원 통권 280호, 45-53.
- 이영자 · 김태현(1999), 단독가구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한국노년학, 19(3), 79-93.
- 이지숙(2007), 노인주택 가구 디자인의 지침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16(6), 1243-1250.
- 조성희 · 전은정(2009), 노인주거계획을 위한 노인가구의 고령기 단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5), 113-122.
- 주택도시연구원(2004),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 보건복지부.
- 주택도시연구원(2006), 고령사회 주거지원 종합대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주택산업연구원(2007), 1인가구 주택수요 전망 및 공급 활성화 방안.
- 조경옥(2003), 고령화사회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샵 자료,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 조명희(1999), 자녀 동거노인과 단독가구 노인의 여가 생활 비교 분석, 한국노년학, 19(3), 94-111.
- 조인숙 · 박남희 · 신화경(2007), Aging in Place를 위한 재가 노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8(1), 95-102.
- 최명규(2000),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9), 29-38.
-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2005),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 치수 표준화 연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한국주거학회(2005), 노인가구의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주택개조기준 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
- 한국표준과학연구원(2005), 고령자 등 특화계층 동적 치수 조사사업
- 통계청(2004), 보고서
- 통계청(2007), 고령자 통계
- 통계청(1995-2005), 각년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
- 통계청, www.kostat.go.kr

접수일(2010. 1. 18)
게재확정일자(3. 9)